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시흥교육지원청 지원으로 지난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흥시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45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다문화가족 예비초등학교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예비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가 참여했으며, 시흥시가족센터 사업소개와 현직에 있는 교사와 함께하는 초등학교 입학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베트남어 통역서비스도

제공됐다. 시흥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황순주 과장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시흥교육지원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날 입학 설명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첫 아이라 초등학교 입학 시 준비사항에 대해 궁금했는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강의해주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지원 하반기 한국어교실 종강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오는 12월 4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하반기 한국어교실 종강식을 진행한다. 이번 종강식에는 35명의 결혼이민자가 수료하게 된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실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여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교육은 말하기반, 지역문화활용반, 토픽 읽기반, 토픽 쓰기반 총 4개반으로 오프라인(대면) 2개 반과 온라인(비대면) 2개 반이 운영 중이다.

이번 종강식은 수강생들이 학업 성취감을 느끼고 수업을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졸업장 및 상장 수여와 소감 나누기, 종강 축하 케이크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한국어교실 수강생 모집 및 한국어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hcity.familynet.or.kr) 및 시흥시가족센터 능곡분관(070-4236-7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겨울철 수두 예방 시흥시,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겨울철 수두 환자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실천을 당부했다.

수두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환자의 침방울 등 호흡기 분비물로 인한 공기 전파나 수포성 피부병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겨울철 유행 시기(11월~1월) 동안 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어, 환자 발생률이 높은 미취학 아동, 저학년 초등학생 등은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 예절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진 등 수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감염 환자는 모든 수포에 딱지가 앉아 전염력이 없어졌다는 의사 판단이 있을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등원·등교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수두 예방접종은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발병률을 낮추고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가벼워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입소, 입학 전 아이의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 빠진 접종이 있으면 반드시 완료하는 것이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병의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함께 오이도 역사탐방해요~

정왕3동 주민자치회, 우리나라 문화 배우기 탐방 진행



개관한 시흥오이도박물관은 오이도유적(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41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이도박물관은 상설전시실, 어린이체험실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 문화재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상설전시실 관람 ▲자개공예(조개더미에 숨겨진 보물찾기) ▲전통체험프로그램(줄줄이 소원놀이) 등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상봉 정왕3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과 함께 오이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다문화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미현 정왕3동장은 “이번 사업은 관내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 시간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시흥시 정왕3동주민자치회(회장 김상봉)는 지난 11월 16일 시흥시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우리나라 문화 배우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오이도박물관과 연계해 다문화가정에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이도박물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 방문해 가족들에게 전시 관람과 체험을 제공했다. 2019년 7월



“시흥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시흥을 바꿀까?” 시흥시가족센터, 가족포럼 ‘나, 너, 우리가 바라는 시흥’ 가족육구조사 결과 발표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지난 11월 28일, 어울림문화홀에서 ‘2024년 가족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나, 너, 우리가 바라는 시흥-시흥가족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시흥을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가족 서비스 욕구와 시흥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시흥시민 1,1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족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가족 포럼은 이번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시흥시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가족포럼은 주제 강연과 대화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도와 사람 연구위원의 강연이 두 차례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윤연숙 연구위원이 ‘사 진으로 이야기하는 나의 시흥’을 주제로 시흥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김정연 연구위원이 ‘시흥가족이 바라는 시흥, 그리고 가족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흥시가족센터가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된 시흥시 가족서비스의 운영방향은 ▲다양한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가족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성장지원사업’과 ‘가족관계증진사업’ 등의 주요 사업화 ▲주민의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중간지원체계로서

의 가족센터 ▲온오프라인 가족서비스 연계의 확대 등이다.

가족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제시된 시흥시의 정책방향도 시선을 끈다. ▲시흥 시민 대상 세계시민교육 확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사업 확대 ▲시흥시를 대표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기관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는 지역 내 이주민에 대한 다소 긍정적이나, 이주민 증가로 인해 동네가 지저분해지거나 시끄러워진다는 등의 부정적 평가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의 포용성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다문화 수용성 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시흥시 전 지역주민 대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연 이후에는 ‘행복한 시흥

을 위한 선주민과 이주민의 대화-주민이 말한다. 이것이 행복한 시흥’ 주민토론이 진행됐다.

윤영순 모두가가족봉사단 회장, 도해란 결혼이민자 가족코칭상담사, 이광재 정왕본동 상인회장, 손혜빈 이음교육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서 고경임 센터장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흥시민이 직접 참여한 이날 토론회는 시흥시의 특성을 반영한 소통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시흥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시흥시가족센터는 이번 포럼에서 얻은 의견과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목감도서관, 다문화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부모 성장 교육’ 연말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 목감도서관은 오는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말 부모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가정 내 건강한 소통과 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주제의 강연과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병준 작가와의 만남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김은주 강사의 ‘우리 아이 첫 역사논술 지도(초

등 2~4학년 학부모 대상)’, 김경선 강사의 ‘2025년도 캘리그래피 가족 달력 만들기’ 등 3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준 작가의 ▲‘왕이 된 자녀 싸가지 코칭’ 강연에서는 과도한 아이 중심 심리학의 폐해를 짚어보고, 사춘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한 부모가 가져야 할 반박의 기술 및 대처방안을 전해줄 예정이

다. 김은주 강사의 ▲‘우리 아이 첫 역사논술 지도’는 강의를 통해 부모들이 사고력 역사교육을 배우고, 자녀와 함께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선 강사의 ▲‘2025년도 캘리그래피 가족 달력 만들기’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다정한 말’이라는 주제로 캘리그래피의 기초를 배우고, 부모가 아이에

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하며 가족 달력을 제작하는 체험을 제공한다. 또한, 이 강좌에서는 그림책 「엄마도감」을 함께 읽으며 부모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과 함께 따뜻한 감성(좋은 글과 말)을 손 글씨로 담아볼 계획이다.

문의 031-310-2588

송하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1월 23일 정왕동 미관광장에서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0월에 열린 ‘우리 지역 환경, 안녕할까요?’ 포럼의 후속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흥시다문화·외국인주민협의회(시사우)와 국가별 자원봉사단체(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약 4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와 일회용 컵 줄이기 실천을 독려하며,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캠페인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사우주민협의회, 국가별 외국인주민자원봉사단체(중국참사랑,

시흥사랑(베트남), 해피몽골)와 쓰레기 처리 감시원들이 협력해 지역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의 의지를 되새겼다.

시흥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환경보호 활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권 주민들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군서미래국제학교 부설주차장 12월 중 개방...주차난 해소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원도심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눔주차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8일 정왕동 군서미래국제학교와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중에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서미래국제학교는 2027년 12월까지 3년간 우선 34면의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시흥시는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개선과 설비 지원을 약속했다.

주차장은 시설 개선과 이용자 모집을 거쳐 12월부터 개방하고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 24시간 운영된다. 단, 학교 행사 일정에는 주차장 개방이 제한된다. 또한, 주차장은 회원제로 운영돼 인근 주민들에게 우선으로 제공되며, 안전과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등 부설주차장 개방,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노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등의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며 원도심 교통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의 031-310-3745~6

이지은 기자

시흥문화 해외 알리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헬로(Hello)! 시흥스테이’ 진행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지난 11월 23일 헬로(Hello)! 시흥스테이 프로그램의 ‘일본 편’을 진행했다.

‘헬로(Hello)! 시흥스테이’는 시흥시 청소년과 시민이 외국인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해 시흥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교류 관광을 활성화하는 대표적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존에는 청소년으로만 진행됐던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후기 청소년(기획연수단)까지 연령 범위를 넓혀 더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일본 대학생 20명이 시흥시 10가정에서 1일 홈비지트(Home-Visit) 체험을 진행했다.

‘일본 편’은 11월 23일 오전 10시 거북섬 웨이브웨스트 호텔에서 진행된 환영식에서 시흥시 가정과 일본 방문단의 첫 만남으로 시작됐다.

환영식 이후 한·일 문화교류 교육이 진행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서로의 문화를 즐겁게 공유하며 친밀감을 쌓았다. 참가자들은 시화호를 둘러보며 보트 체험을 하는 것으로 환영식을 마무리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시흥의 주요 명소를 자유롭게 탐방하며 시흥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2011년에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시흥시 홈스테이 사업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해외 대학 등 다양한 기관 및 도시와 연계해 매년 외국

인 게스트를 초청하고 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 계획 확인 및 참여 신청은 헬로! 시흥스테이(구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 카페(<http://cafe.naver.com/shglobalhomestay>)를 통해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정의 부모는 “시화호 보트체험 같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너무 즐거웠으며, 시흥시를 대표해 일본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주어져 많은 추억을 얻을 수 있었다. 아이에게도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선사하게 돼 기쁘다. 다음 홈스테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도 지역사회에서 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면 좋겠다.

김영의 기자

Иностранцы с выдающимися стартап-идеям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пециальную визу для стартапов в Корее» 스타트업코리아 특별 비자 안내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учредило «Специальную визу для стартапов в Корее», которая предоставляет право пребывания иностранцам с выдающимися идеями для стартапов. Набор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лучение этой визы начинается уже 7 ноября. <Фото=Министерство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и стартапов>

Ранее,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зы по программ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D-8-4), схожей с новой специальной визой, требовалос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иммигрантов OASIS и достижение определённого балла, попадание в топ-20 конкурса K-StartupGrandChallenge или участие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программах поддержки стартапов и прохождение отбора.

Теперь для получ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изы для стартапов в Корее» такие требования минимизированы. Министерство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и стартапов может рекомендовать кандидата в после оценки их бизнеса и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частным экспертным комитетом, 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оведёт только базовую проверку, прежде чем окончательно выдать визу. Новая виза значительно упрощает процесс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уществующей визой дл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стартапов.

Ключевая роль в выявлении и рекомендации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стартапов возложена на Министерство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и стартапов, которое организует экспертный комитет с участием частных специали-

стов. Они будут оценивать результаты и инновационность стартапов, их потенциал на корейском рынке и вклад в экономику Кореи, после чего будут рекомендовать Министерству юстиции выдачу специальной визы. В отличие от визы дл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стартапов, теперь не требуется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ах или программах — виза может быть выдана только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ценки бизнес-плана.

Иностран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олучившие рекомендацию,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визу, посетив 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в Корею или посольство/консульство Кореи в своей стране.

Заявки на «Специальную визу для стартапов в Корее» можно подать с 7 по 20 ноября на портал

e K-Startup (www.k-startup.go.kr) или на сайте GlobalStartupCenter (startup-korea.com).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приёма заявок экспертный комитет проведёт отбор, и, как ожидается, в конце ноября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первые обладатели визы.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Пак Сон Чжэ заявил: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благодаря этой визе талантлив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с инновационными и активными идеями смогут создать бизнес в Корее и вырасти в глобальные компании.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одолжит политику привлечения талантливых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станут новой основ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Кореи».

〈한글 기사 28면, 인터넷에서 파파야 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

Foreigners with excellent startup ideas receive ‘Startup Korea Special Visa’

The Korean government has created a new ‘Startup Korea Special Visa’ that grants Korean residency to foreigners with excellent startup ideas. Recruitment for the Startup Korea Special Visa will begin on November 7th.

In the past, in order to obtain a technology entrepreneurship (D-8-4) visa similar to the ‘Startup Korea Special Visa’, one had to participate in the Startup Immigration Talent Development Program (OASIS) and obtain a certain score, participate in the K-Startup Grand Challenge and be selected as a TOP 20, or apply for a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and be selected as a support recipient.

The newly established Startup Korea Special Visa minimizes the above requirements and, after a

private evaluation committee evaluates business viability and innovation,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commends i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conducts a basic review before finally issuing the visa. It is an innovative improvement in visa issuance requirements, differentiating it from the existing technology startup visa.

The Ministry of SMEs is responsible for discovering and recommending promising overseas startups, which is the core of the Startup Korea special visa system.

The Ministry of SMEs plans to form an evaluation committee centered on private sector experts and comprehensively evaluate overseas startups’ business performance, innovation, potential for entry into

Korea, and contribution to the domestic economy, and recommend special visa issuance to the Ministry of Justice. Unlike the technology startup visa, this is a visa that can be obtained simply by evaluating a plan without having to participate in a startup competition and win a prize or participate in a program.

Foreign entrepreneurs who receive a recommendation can apply for a visa by visiting the Immigration Office in charge if they are residing in Korea, or the Korean embassy (consulate) in the relevant country if they are residing overseas, and submitting a special visa recommendation letter.

Applications for the Startup Korea Special Visa recommendation can be submitted from November 7 to 20 at the K-Startup Portal (www.k-startup.go.kr) and the Global Startup Center

website (startup-korea.com).

After the application period ends, a private evaluation committee will be held and a recommendation process will be carried out, and the first Startup Korea Special Visa recipients are expected to be issued at the end of November.

Minister of Justice Park Sung-jae said, “I hope that through the Startup Korea Special Visa, innovative and proactive talents will be able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in Korea and grow them into leading global companies,” and “Going forward,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continue to pursue policies to attract excellent foreign talent so that they can become a new source of competitiveness for Korea.”

〈한글 기사 28면〉 파파야스토리

시흥시는 지난 11월 30일, 정왕동 청년스테이션에서 ‘다문화와 함께 하는 저잣거리 축제’를 개최했다.

☞ 놀이터 저잣거리 축제는 문화바자회부터 쿠킹클래스, 전통공연과 전래동화부스까지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높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전통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조선시대 저잣거리가 단순한 상점가를 넘어 사람과 사람이 계급을 초월해 서로 교류하던 곳으로 오늘날 다문화와 함께 만난다는 컨셉으로 운영됐다.

행사장에는 일찍부터 바자회와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하루 종일 ▲중국 용등 만들기 ▲아시아 국기 바람개비 ▲인디언 모자 만들기 ▲세계 전통가옥 만들기 ▲한국민화 액자 만들기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오후 2시 30분에는 음식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으로 송편 월별 클래스와 불고기 반미 클래스 등의 쿠킹 클래스가 운영됐다.

한국 전통과 세계 문화 만나요

다문화와 함께하는 저잣거리 축제

시흥시 청년스테이션에서 개최

이어 오후 3시 30분부터는 ▲포바기-난타 ▲해바라기 예술단-중국 전통무용 ▲박병욱-보컬 ▲리아댄스컴퍼니-창작 탈춤 ▲도담-박흥보의 박 ▲리아댄스컴퍼니-호적시나위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참여한 중국 전통 무용 ‘모리화’가 큰 박수를 받았다. 이경화 시흥시청 다문화가족지원팀장은 “저잣거리 축제를 통해 다문화가족들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이웃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다양한 부스에 참여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는 “여러가지 체험을 해봤는데 다 좋았다.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모두의 소원을 적는 소원나무와 4개의 스탬프를 완성하면 상품에 응모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시흥시, 외국인 무료 결핵 검진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각지대 해소 나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11월 17일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미등록 외국인 등 관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결핵 검진을 추진했다.

보건소의 무료 검진은 결핵 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 발굴해 지역사회 내 결핵 퇴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와 협력해 진행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검진 절차는 먼저, 검진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핵 이동검진 차량에서 흉부X선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증상자

나 흉부X선상 유소견자에 한해 보건소에 내소해 객담 검사 등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검진 결과 대상자가 결핵 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미등록 외국인도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인 ‘결핵안심벨트사업’을 적용해 무료 치료를 지원받게 된다.

방호설 시흥시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보건소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 ‘체험형 안전교육’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안전 역량 강화 지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11월 24일 외국인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오산시에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주민 통합교육 ‘슬기로운 한국살이’ 사업의 하나로 위기 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 참가자들은 실제 재난 상황을 재현해 현실적인 안전 대처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 안전 구역을 체험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배웠다. 또한,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응급처치 실습을 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기술을 배웠다.

교육은 다양한 재난 시뮬레이션과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진행된 만큼, 이를 토대로 외국인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현 시흥시외국인주민과장은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지식과 사고 대처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知道夜间・休息日儿童诊疗机构“月光儿童医院”吗？

多文化家庭也有因子女突然生病而感到惊慌的时候吧？特别是孩子在晚上医院关门时生病的话，父母只能更加惊慌。

对此，京畿道等全国地方自治团体正在运营夜间和休息日也接受门诊治疗的儿童诊疗专用医院“月光儿童医院”，京畿道最近开设了2家月光儿童医院，道内儿童夜间・休息日诊疗机构增至40家。

夜间或休息日接受儿童诊疗的医院有“月光儿童医院”，以及薄弱地区夜间和休息日接受儿童诊疗的“薄弱地区儿童夜间休息日诊疗机构”等2种。

相比月光儿童医院，“薄弱地区儿童夜间休息日诊疗机构”是小幅缓解平日夜间和休息日诊疗时间负担的诊疗服务。因为诊疗时间比月光儿童医院短，所以使用前一定要确认诊疗时间。目前，京畿道将月光儿童医院从去年的17家增加到今年28

家（11月基准）。再加上今年新运营了12个薄弱地区小儿夜间休息日诊疗机构，共有40个诊疗机构进行夜间和休息日小儿患者治疗。

月光儿童医院以18周岁以下的轻症儿童患者为对象，平日23点、周末18点之前提供门诊治疗。夜间、休息日也可以进行门诊治疗，可以减少急诊室使用时产生的费用负担，减少患者的急诊室使用。

今年首次运营的12个“薄弱地区儿童夜间・休息日诊疗机构”因人力聘用等问题，京畿道今年指定龙仁、安山、九里、加平等8个市郡的12个医疗机构为运营地点。月光儿童医院不仅在京畿道，在全国都有。

京畿道保健健康局局长刘永哲（音）表示：“将尽最大努力让孩子和父母都能安心使用医疗服务。”

另外，京畿道的儿童专门急救中心有盆唐CHA医院和亚洲大医院等2处。〈한글 기사 13면〉과파야스토리

시흥 청소년, 독일 역사탐방

시흥시, 독일 분단과 재통일 과정 체험해요



시흥시(시장 임병택) 청소년 해외견학 체험단이 지난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진행된 독일 답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시흥시 ‘해외견학체험단’은 역사탐방, 문화예술, 해외봉사, 진로탐방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는 시흥시 청소년(중1~고3) 20명이 독일의 분단과 재통일 과정의 현장을 직접 보고 역사적 사건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체험할 수 있는 역사탐방을 떠났다. 참여 학생들은 출국 전 독일의 역사·문화 교육, 현지인과의 소통 체험 등 답사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모두 마치고 11월 13일 독일 문화의 중심

인 대문호 괴테의 활동지 바이마르의 괴테하우스, 안나 아말리아 도서관 등을 방문하며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베를린 학교를 방문해 현지 청소년과 교류하며 독일 학생들의 수업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며 한국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브란덴부르크문, 홀로코스트 추모비 등 베를린 통일 현장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분단 상황을 비교해보며 국제적 시각을 갖추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역사탐방이라는 주제에 맞춰 현지 독일 역사학자와 마리아넬데 동독난민 긴급수용소, 베를린장벽을 견학하기도 했다. 이후 니콜라이 교회, 파울교회, 하이델베르크 고성을 마지막으로 독일 현지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독일 현지 청소년과의 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독일 분단의 역사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라며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세계적인 시각을 기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